

『참바쿠, 흑인빈민굴』  
: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과 한국전쟁\*

송병선(울산대 스페인·중남미학과)\*\*

- I.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아의 작품 세계와 『참바쿠, 흑인빈민굴』
- II. 『참바쿠, 흑인빈민굴』: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이야기
- III. 『참바쿠, 흑인빈민굴』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의 상황
- IV. 참바쿠: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의 저항의 상징
- V.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과 한국전쟁의 의미
- VI. 문명과 야만의 대립: 『참바쿠, 흑인빈민굴』의 한계
- VII. 『참바쿠, 흑인빈민굴』의 의의

I.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아의 작품 세계와 『참바쿠, 흑인빈민굴』

콜롬비아의 소설가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아(Manuel Zapata Olivella (1920-2004))는 우리에게 그리 알려지지 않은 작가지만, 아프리카계 라틴아메리카 소설에서는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한국전쟁을 작품의 주요소재로 삼아 1950년대 초의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고발하면서 당시의 콜롬비아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글은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아의 『참바쿠, 흑인빈민굴』에

\* 이 논문은 2008년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Byeong-Sun Song(University of Ulsan, Department of Spanish, avionsun@mail.ulsan.ac.kr), *Chambacú, corral de negros: Afrocolombianos y la Guerra de Corea*.

서 한국전쟁이 어떻게 사용되며, 그 주제가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인이 어떤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참바쿠’라는 흑인빈민굴이 현재 콜롬비아의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역사에서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흔히들 라틴아메리카의 문학적 특성으로 마술적 사실주의를 언급하지만, 사파타 올리베야는 마술적 사실주의에 흑인 신화의 힘을 덧붙일 경우 아프리카계 라틴아메리카인들의 문화적 현실을 결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동시대의 마술적 사실주의 작가들과 비교해보면, 사파타 올리베야는 흑인들의 신화와 저항을 작품의 주요주제로 사용한다는 기본적인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Olliz Boyd 1992, 313). 그는 작품을 통해 저항하면서 흑인을 탄압하는 그룹과 맞서고 비판한다. 그는 경제적 수탈과 정치권력의 남용,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흑인문화의 말살과 맞서 싸운다. 그러면서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의 신화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면서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발전에 공헌한다.

1920년 콜롬비아 코르도바 지방의 로리카에서 태어난 사파타 올리베야는 『축축한 땅 *Tierra mojada*』(1947), 『10번가 *Calle 10*』(1960), 『얼굴 뒤에 *Detrás del rostro*』(1963), 『참바쿠, 흑인빈민굴 *Chambacú, corral de negros*』(1963), 『치마에서 성인이 태어나다 *En Chimá nace un santo*』(1964), 『창고, 위대한 영웅 *Changó, el gran putas*』(1983), 『악마의 총살 *El fusilamiento del diablo*』(1986), 『헤밍웨이, 죽음의 사냥꾼 *Hemingway, el cazador de la muerte*』(1993) 등의 소설을 썼으며, 『방황하는 열정 *Pasión vagabunda*』(1949), 『난 밤을 보았다 *He visto la noche*』(1953), 『중국, 오전 6시 *China, 6 A.M.*』, 『죽음과 자유의 단편들 *Cuentos de muerte y libertad*』(1961), 『누가 오스왈도에게 총을 주었나? *¿Quién dió el fusil a Oswaldó?*』 등의 작품집을 발표했다.

거의 반세기에 걸친 작품 활동 기간 동안, 형식과 내용과 세계관에 있어서 사파타 올리베야의 문학은 꾸준히 변화하고 발전한다. 마

리오 레이(Mario Rey)가 지적하다시피, 일반적으로 그의 작품세계는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하나는 『축축한 땅』과 『10번가』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자 공익적 성격을 띤 작품들이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작가는 소설 기법 탐구에 그다지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3인칭 서술, 대화, 화자의 가치 평가적 개입 등 전통적 소설기법을 선호한다(Rey 1994, 132).

그리고 또 다른 단계는 『참바쿠, 흑인빈민굴』과 『치마에서 성인이 태어나다』부터 시작된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신화의 예술적 복원인데, 이것은 이후 『창고, 우리의 위대한 영웅』에서 본격적으로 발전된다. 주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단계는 ‘아프리카계’를 강조하면서, 인종차별과 인종 정체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킨다. 한편 형식적 차원에서는 사실주의 문학에서 주로 사용되던 형식과 언어를 전복시키면서 실험성을 띤다. 루시아 오르티스(Lucía Ortiz)는 그가 공식담론을 해체하기 위해 이런 기법을 사용한다고 지적한다. “사파타 올리베야는 공식담론을 해체하기 위해 신화를 사용하고, 전통적인 문법 구조 및 어휘와 단절하며, 여러 장르를 중첩적으로 이용하고, 신조어를 창조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관점을 만들어내고, 반복이나 리듬 혹은 동음이의어 등과 같은 여러 요소를 사용한다.”(Ortiz 2007, 51). 사파타 올리베야는 이런 공식담론을 해체하면서, 서양이라는 범주를 문제시한다.

요약하자면,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의 소설은 사실주의로 시작하면서, 주변적 인물들이 경험한 사회적 현실에 관심을 보인다. 즉, 자기 자신이나 가족, 혹은 공동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킬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농민들(『축축한 땅』과 『치마에서 성인이 태어나다』), 혹은 도시빈민(『10번가』)처럼 고통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참바쿠, 흑인빈민굴』을 출발점으로 사파타 올리베야의 작품은 탄압의 요인으로 인종차별을 다루기 시작한다. 즉, 피부색과 그에 따른 사회계급으로 인해 흑인을 거부하고 공격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주변적 위치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아프리카계 작중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으면서, 아프리카계 공동체 주민들의 마술적-종교적 맥락을 살핀다.

1940년대에 자신의 ‘방랑자적 열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콜롬비아를 떠난 이후, 그는 콜롬비아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계 후손들의 상황을 깨닫고, 그것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1989년 5월 26일에 쓴 편지에서, 사파타 올리베야는 비록 자기가 콜롬비아에서 비백인 그룹이 겪는 편견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인종주의에 대한 자각은 느린 과정으로 진행되었다고 인정한다. 그러면서 그것은 라틴아메리카 환경이 너무나 전형적인 위선과 거짓 수사학을 구사하면서 대부분의 인종차별적 행위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Olliz Boyd 1992, 317). 사파타 올리베야는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에서의 원주민 차별과 미국에서의 흑인에 대한 인종 폭력 행위를 비롯하여, 콜롬비아와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미국에서 인종차별성 모욕을 손수 경험한다. 아마도 그의 작품이 인종차별주의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이런 경험에 바탕을 두었던 것 같다.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는 『창고, 위대한 영웅』을 발표하면서 아프리카계 라틴아메리카 인의 정체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성공한다. 이때부터 그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작가로 두각을 나타내고, 그의 중요성은 2000년에 콜롬비아 대통령 비서실이 주는 보야카 훈장을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인정 된다<sup>1)</sup>. 보야카 훈장은 콜롬비아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평생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그가 이 훈장을 탔다는 사실은 그의 작품이 콜롬비아 문화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인을 위해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그의 작업이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국가 유산’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1) 『참바쿠, 흑인빈민굴』을 출판할 당시, 그는 콜롬비아 국내외의 아프리카 관련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었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대작 『창고, 우리의 위대한 영웅』(1983)을 출판하면서부터이다. 그때부터 그의 이름은 미국과 유럽에서 수많은 박사논문에서 언급되며, 수많은 기사와 책들과 학술논문의 초점이 된다. 『창고, 우리의 위대한 영웅』 출판 이후, 콜롬비아 국내외 비평계는 그의 모든 작품과 다른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작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 II. 『참바쿠, 흑인빈민굴』: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이야기

‘참바쿠’는 콜롬비아의 대서양 해안도시인 카르타헤나 근교에 위치한 섬 지역으로, 흑인노예들의 후손이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동네이다. 그곳은 “다닥다닥 붙어있는 만 개의 판잣집으로 이루어진”(Zapata Olivella 1963, 12) 지역으로 카르타헤나의 성벽과 허름한 나무 교각으로 연결되어 있다.<sup>2)</sup> 그런데 콜롬비아는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힘을 합치기로 하고, 조국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강제로 흑인들을 징병하여 ‘콜롬비아 대대’를 조직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에는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가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인종차별적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카르타헤나의 경찰은 참바쿠에 들이닥친다. 그러자 섬 주민들은 일상 활동을 중지하고 경찰을 피해 숨는다.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코테나(Cotena)’도 자기 아들들을 숨기려고 한다.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남 막시모(Máximo)는 체포된다. 그녀의 다른 아들인 권투선수 메디아루나(Medialuna)와 권투코치 카밀로(Camilo)는 사탕수수 숲속으로 숨어 강제 징병을 피한다. 한편 또 다른 아들인 투계(鬪鷄)애호가 크리스폴로(Crispulo)는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투계시합장에 있고, 밀수에 종사하는 호세 라켈(José Raquel)은 실종된다.

막시모는 섬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동체 활동을 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노예 출신 후손들 중에서 글을 읽고 쓰는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유인물과 플래카드를 만들기도 했고, 열네 번이나 감옥에 갇힌 전력을 갖고 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자 한국 파병을 거부하고, 수년 간 감옥에 갇히는 편을 택한다. 그런 동안 참바쿠 동네의 분노는 커져간다. 그것은 왜 그들이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범죄자

2) 이에 관해 자세한 것은 Buitrago Villamizar, Alejandra(2006), “Rodeados por las murallas: conflictos por el territorio en La Boquilla, Cartagena,” *Memorias: revista digital de historia y arqueología desde el Caribe*, Año 3, No. 5 ([www.uninorte.edu.co/publicaciones/memorias/memorias\\_5/articulos/Cartagena.pdf](http://www.uninorte.edu.co/publicaciones/memorias/memorias_5/articulos/Cartagena.pdf))를 참고할 것.

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호세 라켈이 실종되자 그의 숙모 페트로닐라(Petronila)는 그를 찾으러 나가지만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자 섬의 점쟁이인 늙은 보니파시오(Bonifacio)를 찾아간다. 그는 카드 점을 쳐주면서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조카가 떠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호세 라켈이 체포되었고, 경찰과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던 호세 라켈은 감옥에 갇히는 대신 한국전쟁에 자원하는 걸 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분노하고 숙모는 괴로워한다. 병사들은 군복을 입고 전쟁터로 출발한다. 막시모의 친구 아틸리오(Atilio) 역시 강제로 징병된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 루데르신다(Rudersinda)는 어찌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고, 아틸리오는 그녀를 홀로 놔둔 채 한국으로 출발한다. 아틸리오는 막시모와 시위에 참가했었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막시모가 자기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확신하면서 막시모의 어머니에게 욕을 퍼붓는다. 아틸리오는 한국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다.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호세 라켈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겨울외투를 두른 채 금발의 여자를 데리고 부자가 되어 전쟁터에서 돌아온다. 그가 도착하자 섬 주민들은 기뻐하고, 그는 전쟁이야기를 들려준다. 부산의 어느 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호세 라켈은 전쟁 일화를 들려주면서 전투 중에 불구가 된 육체를 자세히 묘사한다. 한편 그는 전쟁터에서 더러운 수작을 부린다. 피해보상으로 사용되는 전사자들의 신분증명서를 사고팔면서 돈을 벌었던 것이다. 즉, 그에게 전쟁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업거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 후 그는 스웨덴으로 갔다가 잉헤(Inge)라는 금발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녀를 참바쿠로 데려왔던 것이다. 참바쿠의 흑인 주민들은 그토록 흰 피부의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도착하면서부터 참바쿠 주민들에게 충격을 준다.

호세 라켈의 아내 잉헤는 참바쿠에 도착하여 더위와 가난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반면에 호세 라켈은 창녀와 술과 마약에 빠져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전쟁에서 번 돈을 탕진하고, 잉헤는 허름한 오두

막집에 혼자 남는다. 마을 주민들은 그녀를 이상한 벌레처럼 쳐다보고, 그녀는 성적 아이콘이 된다.<sup>3)</sup> 즉, 많은 마을 주민들이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와 열정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숨겨진 욕망을 지니게 된다. 한편 막시모는 감옥에서 석방되고, 잉헤를 사랑하게 되고, 잉헤는 그의 욕망에 화답해준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이 마을의 창녀들과 술집에서 전전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복수였다.

잉헤와 불륜의 관계를 맺지만, 막시모는 자기 공동체의 권리를 되찾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의 그런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아무도 그에게 감사하지 않으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는 모두가 그를 비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열네 번이나 투옥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메디아루나는 권투경기에서 일격을 당해 쓰러지고, 목숨을 잃을 위험한 순간에 기권한다. 크리스폴로는 계속해서 투계에 몰입하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닭이 죽은 이후 그 경기에서 은퇴한다. 코테나의 외동딸인 클로틸데(Clotilde)의 아들 도밍기토(Dominguito)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투계를 시작하려다가 말의 뒷발에 채여 한쪽 다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다. 잉헤는 자기 가족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선생으로 일하고, 또한 참바쿠 바깥에 위치한 어느 회사에서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해준다.

어느 날 키로스(Quirós) 대위가 호세 라켈을 불러 참바쿠에서 거행될 평화유지단 환영 행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협력의 대가로 호세 라켈을 경사로 임명한다. 마을은 열광에 사로잡히고 평화유지단 환영 준비를 시작한다. 호세 라켈의 업무는 사회동요를 일으켜 막시모와 참바쿠의 자선 교사인 도미틸라(Domitila), 그리고 잉헤의 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비밀목적을 띠고 있었다. 실제로 성난 마을

3) 잉헤가 참바쿠 주민들의 성적 아이콘이 되는 것과는 달리, 그곳에서는 잉헤가 호세 라켈을 따라온 이유가 그의 훌륭한 성행위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 그러나 나중에 호세 라켈은 한국전쟁에서 부상을 입어 성 능력을 상실했음이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사파타 올리베야는 흑인 남자와 백인 여자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문학 작품들 속에서 흑인을 원시적 성적 에너지로만 이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람들은 막시모가 이끌던 위원회를 공격하고, 학교로 사용되고 있던 도미틸라의 집을 파괴하기위해 그곳으로 향한다. 그녀는 분노하면서, 자기가 그곳의 설립자 가족임을 외치고는 부모의 초상을 떼어내고서 자기 집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위협한다. 그러자 공격자들은 저 세상에서 그 저주가 마력을 발휘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면서 급히 그곳에서 철수한다.

평화유지단이 도착한다. 그러자 참바쿠 주민들은 미국인들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철제 골조로 이루어진 집을 지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자, 아들의 사망소식에 미쳐버린 아틸리오의 어머니는 막 도착한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고 욕을 퍼붓는다. 경찰이 그녀를 제지하고 재갈을 물려 입을 막는다. 10년 발전 계획으로 그 마을에 투자할 것을 약속하는 연사의 연설문이 끝나자 실망한 군중들은 그들을 공격한다. 다음날 아틸리오 어머니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장례식장은 경찰의 폭력을 비난하는 항의와 시위의 장소로 변한다.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가운데 경찰은 시위대를 공격하고, 그런 혼란 중에 막시모는 숨을 거둔다.

### III. 『참바쿠, 흑인빈민굴』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의 상황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의 가장 훌륭한 작품 중의 하나라고 인정받는 『참바쿠, 흑인빈민굴』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의 삶을 다루는 소설이다. 즉, 한국이라는 무대가 참바쿠 주민들의 삶 속에 투영되면서 콜롬비아라는 지리적 경계는 확장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파타 올리베야의 작품 세계에서 『참바쿠, 흑인빈민굴』이 주목을 받는 것은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작품과는 달리 공민권을 박탈당한 가난한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사람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현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사람들을 통해 콜롬비아 내의 사



회적 불평등을 비난하고 그에 맞선 투쟁을 다루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참바쿠, 흑인빈민굴』 이전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후손들은 콜롬비아 소설 속에서 그다지 조명을 받지 못했다. 흑인들은 가난한 원주민의 삶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작품에 가려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이 출판되면서,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의 서사적 초점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인종과 종족에 관한 추상적인 언급을 벗어나 보다 구체성을 띤 인물들을 제시하고 그 인종적 특징을 밝히는 것으로 이동한다.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의 이전 작품들 속에서는 작중인물의 인종적 특징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작품의 사회적 상황이나 맥락과도 연결되지 못한다. 이전 작품들 속에서 인종차별주의는 그들의 위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지 못한다. 오히려 흑인, 가난한 백인, 원주민들이 동등한 희생자로서 제시된다. 하지만 『참바쿠, 흑인빈민굴』에서 독자는 첫 대목부터 아프리카계 하층계층과 만나게 된다.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주제가 부각되지 못한 이유는 콜롬비아의 역사적 상황에 기인한다. 니나 데 프리드만(Nina de Friedemann)과 하이메 아로차(Jaime Arocha)에 의하면, 흑인이 콜롬비아의 역사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배제되었던 이유는 콜롬비아의 교육체도가 수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의 역사를 정규과정에서 배제한 것에 일부 기인한다(Friedemann y Arocha 1995, 47). 이렇게 흑인들의 문화적 공헌이 철저히 무시된 것은 “콜롬비아와 같은 나라들에서 아프리카인들의 후손을 차별하기 위해 행해진 효과적인 전략”(Friedemann y Vanin 1995, 16)의 결과로 여겨져야 한다. 아프리카의 후손들을 사회분야에서 소외시키려는 콜롬비아 당국의 의지는 확고하고 교묘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아프리카계 후손을 무시하는 사고방식은 19세기부터 진행된 ‘백인화(blanqueamiento)’라는 이데올로기에 뿌리박고 있다. 바로 콜롬비아의 국가형성시기이자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확

립된 시기이다. 당시에 정치·문화당국은 피부색에 바탕을 둔 카스트 체제를 설립하여 흑인들을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 위치시켰다 (Gutiérrez Azopardo 1994, 73). 1886년에 제정된 새 공화국의 첫 번째 헌법의 핵심은 ‘진보’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여기서 ‘진보’는 모든 콜롬비아 인들을 하나의 ‘인종’으로 동화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백인화 이데올로기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이다. 흑인들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여겨졌고, 이런 방식으로 ‘혼혈 민족’을 백인화 하도록 백인들의 이민을 인정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국가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바뀌었고, 당국은 인종통합이란 주제에 다른 접근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Friedemann y Arocha 1995, 64-67). 니나 프리드만과 하이메 아로차, 그리고 알프레도 베닌에 의하면, 과거에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을 설명하던 ‘메스티소’란 용어는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인들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이는 사회적·인종적 차이와 원주민과 흑인에 대한 차별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였다. 현재까지 콜롬비아에서 ‘메스티소’란 용어는 “정치적 행동 이데올로기로서, 계속해서 정체성의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인종적 다양성을 말살하기 위해”(Friedemann 1993, 20)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원주민과 흑인들의 인종적 정체성이 은폐되면서, 콜롬비아의 대다수 사람들은 인종차별주의가 콜롬비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런 주장은 언론매체에서 백인 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홍보하며, 동시에 학교에서는 흑인과 원주민의 유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유대-기독교적 유산과 유럽 혹은 스페인의 조상만을 평가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 IV. 참바쿠: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의 저항의 상징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 참바쿠를 “노예들이 살던 옛 구역”(García Márquez 1994, 23)이나 “빈민들의 죽음의 함

정”(García Márquez 1994, 31)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참바쿠를 심도 있게 파헤치는 대신, 부유한 계층이 살던 망가(Manga)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런 점에서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가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설정한 무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참바쿠라는 장소를 소설의 중심 무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참바쿠는 아프리카인을 조상으로 둔 많은 콜롬비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며, 카르타헤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다. 그래서 대부분 가난한 흑인 콜롬비아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는 카르타헤나를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지배하는 사회, 정치적 구조와 동떨어진 섬이라고 볼 수 있다.

1852년 노예제가 철폐되자, 많은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인들은 일 거리를 찾아 움직였고, 태평양 연안과 막달레나 강 유역, 그리고 산타 마르타와 카르타헤나 근교에 정착한다. 식민지 기간에 참바쿠는 전설적인 인물인 벤코스 비오오(Benkos Bioho)<sup>4)</sup>의 지휘 아래 노예 해방운동의 중심지로 부각된 곳이기도 했다(Ortiz 2007, 155). 엘리사베스 쿠닌(Elisabeth Cunin)에 의하면, 참바쿠는 육지와 바다 사이의 맹그로브 습지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로 그 습지는 모래와 쓰레기들이 모여 단단한 땅으로 변했다. 20세기 초에 전차 건설과 국도 건설로 인해 참바쿠는 카르타헤나 성벽 근처에 인접한 마을 중에서 가장 큰 곳으로 바뀐다. 이 작업이 종료되자 참바쿠 사람들은 카르타헤나의 부유층 거주 지역에서 건설노동자, 세탁부, 그리고 파출부로 일한다. 당시 대도시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가난한 마을들처럼 콜롬비아 당국은 참바쿠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래서 그곳은 전기와 하수도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도 없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빈민촌”(Cunin 2003, 135)이 된다.

그런데 1970년대 초에 카르타헤나는 중요한 관광도시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참바쿠는 그 도시의 이미지에 방해가 되는 대표적인 지역

4) 16세기에 카르타헤나 남동쪽에 탈주노예 공동체인 ‘팔렌케 데 산 바실리오(Palénque de San Basilio)’를 설립했으며, 1619년에 스페인군에게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함.

이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철거 계획이 시작된다. 투자자들, 건축가들, 정치가들이 그곳 주민을 철거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도시 재개발 계획을 약속하면서 도착한다. 하지만 그 어느 계획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1970년대 초에 이 흑인 동네는 철거되었고, 그곳의 주민들은 아무렇게나 버려진 채 근처 다른 공동체에 살게 된다. 쿠닌(Cunin)은 이런 재개발 정책을 “1970년대 초에 시작했던 도시계획 정책의 야심과 부조리의 가슴 아픈 증거다.”(Cunin 2003, 136)라고 평가한다.

콜롬비아의 공식 역사에서 참바쿠는 단지 흑인 빈민굴의 본보기로 남아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콜롬비아 역사의 열려진 장이다. 그곳에는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문화, 정치, 사회, 경제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으며, 따라서 콜롬비아 집단 기억의 한 장소를 차지한다. 그렇게 참바쿠는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국가 공동체에서 시민으로서 참여하기 위해 싸워야만 했던 지난한 여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의미를 지닌 과거 노예들의 땅으로 기억된다.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의 『참바쿠, 흑인빈민굴』은 침묵을 지켜야만 했던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공동체를 통해 그들의 문화와 역사, 사회와 인종 등을 다루는데, 이것은 바로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의 역사에 해당한다. 동시에 참바쿠라는 이름이 오늘날까지 콜롬비아 흑인 저항의 상징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속시키면서, 집단적 기억의 주변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한다.

## V.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인과 한국전쟁의 의미

『참바쿠, 흑인빈민굴』은 참바쿠에서 아프리카계 흑인들 사이의 삶이 어떤지 보여준다. 참바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이 소설은 ‘징병’, ‘전리품’, 그리고 ‘전투’라고 명명되어진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 세부분의 제목은 모두 싸움을 암시한다. 여기서 한국전쟁이란 모티프는 주로 콜롬비아 군부가 한국에 파견할

군인들을 강제로 징집하는 제1부의 ‘징병’의 행위에 대한 배경을 제공한다. ‘전리품’은 한국전쟁의 여파가 그 동네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전투’는 콜롬비아 정부가 관광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참바쿠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겠다는 정책을 수립하자, 폭력을 통해 그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다루면서, 참바쿠 주민들이 평화유지단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소설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들은 코테나 가족이다. 이 가족은 어머니인 코테나, 장남 막시모, 호세 라켈, 딸 클로틸데, 크리스폴로, 권투선수 메디아루나로 이루어져 있다. 호세 라켈은 정부군에 체포되어 한국전에 참전하고 전리품으로 새 모터사이클과 스웨덴 여자 잉हे를 데리고 돌아온다. 그러나 막시모는 전쟁터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몇 년을 감옥에서 보낸다. 코테나는 그들이 체포된 날 밤에 자기 아들들을 미친 듯이 찾는다. 그러면서 막시모의 말을 떠올린다.

내게는 참바쿠밖에 없어요. 카르타헤나도 아니에요. 우리를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싸움터로 나가야 하는 거죠? 미국 놈들에게 짐 실는 동물로 봉사하는 건 더욱 안 되지요. 그들이 중국인이나 한국인을 죽이고자 한다면, 그건 그들이 무언가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돈이지요. 그들이 관심을 보이는 건 오직 그것뿐이에요. 그 작자들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나는 거기서 그들이 흑인들을 목매달아 죽여 버릴 것임을 알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 중국인들을 죽이길 바라고 있어요. 아주 좋은 사업이지요(Zapata Olivella 1963, 37).

이 대목에서 막시모는 한국전쟁에 관한 구체적 언급보다는 미국의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비판한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등 시민으로 취급받고 남용의 대상이 될 아프리카 후손들을 전쟁터로 보내는 정부의 위선도 고발한다. 막시모에게 돈은 자본주의 악의 진정한 기초이다. 그는 미국인들을 부유하게 만들 목적으로 흑인들을 수탈하는 행위도 거부한다. 막시모는 참바쿠에서 벽에 혁명 구호를 그리면서 권력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반란의 힘도 제공한다.

『참바쿠, 흑인빈민굴』은 한국전쟁을 모티브로 삼아서 콜롬비아 역사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 즉 1952년부터 1961년까지를 다룬다. 이 시기는 콜롬비아에게 있어서 가장 탄압적이고 폭력적인 시기였다. 즉,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독재체제를 자행했던 라우레아노 고메스(Laureano Gómez) 정권과 로하스 피냐(Rojas Pinilla)의 군사정권 시기,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에 해당한다. 어느 역사가는 콜롬비아의 참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맥아더 장군이 콜롬비아 독재정부에게 미국 국무부와 암암리에 계약을 맺을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들과 공모하는 대가로, 그리고 미국 뉴스 통신사들이 침묵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또한 갈수록 거세지는 콜롬비아인들의 저항을 진압하는데 필요한 무기의 대가로, 콜롬비아의 독재정권은 한국 파병을 서둘러 제안하고 실현시켰다. 군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면 의회의 동기가 필요하다는 헌법 조항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콜롬비아인들의 의지에 역행하면서, 독재정부는 자진해서 우리 군대의 육군과 해군을 한국에 파병하는 원정군에 통합시켰다(Cuéllar 1963, 202).

미군과 함께 힘을 합치기 위해 징병된 흑인들은 라우레아노 고메스 정부와 미국 국무성과의 협약에 따른 것이었다. 참바쿠의 흑인들은 미군 참호에서 ‘대포의 밥’으로서 이상적이었으며(Rengifo 2001, 37), 이 군대는 당시 폭력사태로 인해 콜롬비아가 겪고 있던 사회적 불안정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될 미국의 군사원조에 대한 대가였던 것이다. ‘징병’이라는 부분에서 콜롬비아 군대의 병사들은 흑인 동네로 와서 수백 명의 흑인 주민을 검거하여 강제로 징병한다. 그 장교 중의 하나는 이렇게 외친다. “빌어먹을! 이런 상태로 한국에서 싸우겠다고 생각하는 건가! 중공군들이 불에 구운 비둘기처럼 너희들을 먹어치우고 말거야. 저 선동자들을 어서 체포해! 무슨 일이 있어도.”(Zapata Olivella 1963, 6). 이 대목은 콜롬비아 병사들의 느슨한 태도와 해이한 정신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해결되고, 한국전에서 귀국한 후 그들의 병력은 콜롬비아 내의 게릴라와 맞서 혁혁한 성과를 거둔다.

『참바쿠, 흑인빈민굴』은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저항정신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황폐한 결과를 가져다주었는지 보여준다. 가령 막시모와 매우 대조적인 호세 라켈은 한국에서 전사한 병사들의 신분증명서를 파는 더러운 수작을 통해 돈을 벌었던 것처럼 도덕심이 결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게 전쟁은 정말로 ‘홀륭한 사업’이었다. 한국전쟁에 참가한 많은 참바쿠 주민들은 결코 참바쿠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그들의 가족들도 고통 받는다. 그 중에서도 기관총에 희생당한 아틸리오의 어머니는 가장 고통 받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 불쌍한 여자는 소식을 받아 미쳐버렸다.”(Zapata Olivella 1963, 68). 후에 그녀는 평화봉사단이 참바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그렇게 한국전쟁은 아프리카계 후손들이 투쟁을 벌이게 만드는 간접적이지만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한다.

이렇듯 사파타 올리베야는 사회적으로 불안했던 1950년대의 콜롬비아 역사를 중심으로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일상생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준다. 그런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 작가는 그들의 배고픔과 좌절과 기쁨, 그리고 그들의 종교와 주술을 비롯해 공동체를 지배하는 문화적 요소를 파헤친다. 한국전쟁은 콜롬비아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던 식민화 체제에 대한 투쟁을 촉발시키고, 결국 한국전쟁의 여파는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단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런 자각은 막시모가 잉헤에게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곳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 조상의 문화 역시 질식되었지요. 그건 마술적 방식으로 표현되지요. 소위 미신이라고 불리지요. 400년 전부터 우리는 “이건 내 거야”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타인의 언어로 우리 자신을 표현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정확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내가 혁명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속박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라는 존재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거랍니다(Zapata Olivella 1963, 121).

막시모에게 반항은 노예제도라는 비인간적인 과정에서 상실했던

인격을 되찾는 것이다. 노예제는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문화의 수많은 긍정적인 측면을 제거했다.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사람들의 일부는 인격조차 상실했고, 막시모의 자기긍정은 이런 상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태도는 “우리라는 존재의 권리만을 요구”한다는 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과거의 긍정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벌이는 현재의 투쟁은 바로 그들의 인격에 바탕을 둔 권리 찾기인 것이다. 막시모는 잉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인들이 어떻게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켰는지 설명하면서, 벤코스 비오오와 산 페드로 클라베르(San Pedro Claver)<sup>5)</sup>와 같은 과거의 역사적 인물들을 언급한다.

이 작품은 참바쿠를 유럽인과 미국인을 위한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그곳을 통제하려는 콜롬비아 군 당국과 맞서 시위를 주도하는 도중에 막시모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 막시모의 죽음은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인들이 지니고 있는 혁명 정신을 대표한다. 그래서 마빈 A. 루이스(Marvin A. Lewis)는 이렇게 지적한다. “막시모의 죽음은 헛되지 않다. 그것은 반란의 씨앗이 이미 뿌려졌고 참바쿠의 주민들은 병사들과 타락한 관리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 막시모의 연설은 흑인의 힘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으며, 그는 사회적 행동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막시모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개선시키기 위해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Lewis 1987, 107). 한편 리처드 L. 잭슨은 막시모를 이렇게 평가한다. “아마도 현대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그 어떤 작중인물보다도, 막시모는 오늘날 미국에서의 흑인들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시민 활동가들을 특징짓는 혁명 정신을 떠올리게 한다.”(Jackson 1976, 120).

『참바쿠, 흑인빈민굴』은 노예제도 철폐 이후 카르타헤나의 옛 노예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회고발 작품이다. 흑인들은 콜롬비아 사회의 쓰레기였다. 그런데 카르타헤나의 부자들은 그들에게 이 말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그들을 제거할 아주

5) 산 페드로 클라베르(1580-1654)는 예수회 신부로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에 도착하는 노예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헌신했다. 노예들의 수호성인으로 일컬어진다.



훌륭한 장소를 발견한다. 그곳은 바로 콜롬비아 대대였다. 콜롬비아가 참전했던 한국전쟁에서 수많은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인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은 흑인이었고 콜롬비아 국민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기 때문에 백인화를 지향하던 콜롬비아의 국민들은 그들을 위해 울지 않는다.

## VI. 문명과 야만의 대립: 『참바쿠, 흑인빈민굴』의 한계

앞서 지적했듯이, 『참바쿠, 흑인빈민굴』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동안 콜롬비아를 휩쓴 ‘폭력사태’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출판된다. 그리고 이런 폭력사태를 상세하게 다루는 작품들이 출간되면서 ‘폭력사태 소설(Novelas de la Violencia)’이라는 문학적 현상을 형성하게 된다. 대부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유형을 따르는 이런 소설들은 자유당과 보수당의 치열한 투쟁을 소재로 삼으면서, 수많은 콜롬비아 사람들이 경험했던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수탈의 조건을 충실하게 재생한다.

『참바쿠, 흑인빈민굴』은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공동체를 괴롭힌 문제들을 제시한다. 이 작품의 문학적 기법과 내용은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유사하다. 그러나 동시에 인종적 주제와 주요 핵심요소로서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의 문화적 의식의 관점에서 접근한다(Captain-Hidalgo 1993, 43-76). 알레한드라 령히포(Alejandra Rengifo)가 지적하듯이, 『참바쿠, 흑인빈민굴』은 억압자(국가, 군대, 상인대표들)와 피억압자(참바쿠의 주민들) 사이의 문제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들을 제시한다. 바로 이런 피억압자들 중에서 혁명지도자 막시모가 탄생한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사상을 정치적 의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며, 결국 그를 따르는 참바쿠의 주민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혁명과 해방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만든다(Rengifo 2001, 39).

이렇게 『참바쿠, 흑인빈민굴』에서는 당시 많은 작가들이 예술 창

작에 사용하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사파타 올리베야는 이런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의내리기 위해 그들의 문화적 의식을 향한 자각과 관련된 문제<sup>6)</sup>를 통합한다. 즉, 당대의 형식적 경향을 눈에 띄게 보여주기 위해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출발하지만, 그것은 흑인 주인공이 아프리카의 후손으로서의 나를 확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출신을 확인하고 지배 사회에서 자신의 하위주체적 위치를 의식하는 것으로 발전된다. 이런 주제를 통해 이 작품은 콜롬비아가 공식적으로 침묵을 지켰던 인종차별과 사회적 부정을 밝힌다.

한편 이 소설은 식민화된 주체 혹은 하위주체의 관점에서 현실을 구성하려고 하지만, 담론은 식민주의의 - 이 경우는 백인 혹은 참바쿠 주민을 위협하고 수탈하는 참바쿠 이외의 사회 - 구도를 그대로 답습한다. 그것은 작가가 만들어낸 하위주체가 식민주의 담론이 만들어낸 범주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식민주의 담론이 지향하는 자아와 타자의 이분법적 구조를 띤다. 이 작품은 아프리카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아프리카계와 비아프리카계 그룹의 인종적 분리를 야기한다. 그렇게 이 소설은 흑인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자연적 결과가 아닌 가난의 결과라는 결론으로 이끌려고 하지만, 여기서 아프리카계 주민들은 타자로 제시된다. 그래서 원주민주의(indigenismo)가 그랬듯이, 사파타 올리베야의 작품은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상황을 고발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타자로서의 그들의 존재를 영속화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Ramírez 2007, 174).

헤이든 화이트는 야만인과 비문명인이 타자를 구성한다고 지적한다. 『참바쿠, 흑인빈민굴』의 묘사와 그곳 주민들은 화이트의 결론을 떠올리게 한다. 즉, 야만인과 비문명인은 자연의 노예이며, 동시에

6)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문학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이런 경향은 19세기에 낭만주의 시인인 칸델리오 오베소(Candelario Obeso)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후 20세기 초반에 카르타헤나 출신의 시인 호르헤 아르텔(Jorge Artel)에 의해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다(Ortiz 2007, 160).

자기 욕망의 노예이고,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열정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불안정하며 혼란스러운 존재들이며, 자율적이고 정착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항구적인 노동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열정적이고 말할 수 없는 하위주체들이며, 탐욕스럽고 음탕한 사람들이다(Ramírez 2007, 174). 가령 『참바쿠, 흑인빈민굴』에서 호세 라켈은 자기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제시된다. 그는 열정적이고 음탕하며 어정쩡한 존재로, 참바쿠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서 창녀들과 어울리거나 술집을 전전하며 살아간다. 막시모와 호세 라켈의 또 다른 형제인 크리스폴로와 조카인 도밍기토는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참바쿠의 모든 사람들은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제시된다. (여기서 유럽여자인 잉헤는 예외이다. 그녀는 섬 바깥에서 비서로 일한다). 모두가 지리멸렬하며 혼란스러운 존재들이며, 여자와 술과 노름이라는 욕망에 의해 통제되는 사람들이다. 막시모는 이렇게 지적한다. “우리는 검은 암적 존재지요.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어느 날 우리가 다리를 건너가 도시를 오두막집으로 가득 채울지도 모른다면서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리도 없고 하수도도 없으며, 학교나 위생시설도 없는 거지요. 그들은 우리를 가난 속에서 죽여 버리려고 해요.”(Zapata Olivella 1963, 128). 클로틸데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듯이 참바쿠는 “죽음의 땅”(Zapata Olivella 1963, 23)으로 표현된 타자이다. 여기서 참바쿠는 진흙탕과 고인 물, 분노, 썩은 조개만 캐 수 있는 악취 풍기는 물이자 데울 것이 없어서 불 꺼진 아궁이와 동일시된다.

비록 참바쿠는 타자의 땅으로 제시되지만, 그 외곽도 그보다 낫지는 않다. 한국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감옥으로만 제시되는 카르타헤나도 그렇다. 또한 참바쿠를 떠나려고 노력하는 사람 역시 소위 문명의 세계, 즉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더욱 악화된 야만의 상태에 빠진다. 가령 호세 라켈은 입대하여 한국과 유럽으로 가지만, 결코 문명화되지 못하고 더 타락한 인간이 되어 돌아온다. 그리고 키로스 대위나 그의 조수들, 카르타헤나 주민들도 더 문명화된 사람들

이 아니다. 한편 참바쿠로 들어오는 잉헤는 처음에 그녀가 두려워하는 밀렵에 잡아먹히지 않고, 그 공간에서 야만적으로 변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 소설은 문명/야만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즉, 인종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저항 담론의 성격을 띠는 것처럼 보인다. 크리스폴로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을 한다. 그는 한국전쟁 참전에 반대하는 이유로, 자신이 콜롬비아에 속하지 않으며, 자기는 다른 상상의 공동체, 즉 인종과 공통의 역사로 구성된 참바쿠 공동체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up>7)</sup> 하지만 이런 주체/객체, 문명/야만의 대립은 근본적으로 중심을 주장하며 중심 해체를 거부하는 식민주의적 도식이며, 따라서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 VII. 『참바쿠, 흑인빈민굴』의 의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참바쿠, 흑인빈민굴』은 한국전쟁을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한 배경으로 사용하면서, 한국전쟁에 참가한 ‘콜롬비아 대대’에 왜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작가 사파타 올리베야는 한국전쟁의 성격이나 전쟁의 비참함 혹은 한국전쟁 참전의 의미와 같은 것을 서술하는 대신, 한국전쟁이 참바쿠라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어

7) 릴리아나 라미레스(Liliana Ramírez)는 “흑인 동네인 참바쿠가 성벽 아래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들은 그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 이리로 끌려왔어요. 노예선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온 노예들로 가득 차서 도착했지요. 만딩가, 울로포, 미나, 카라벨리 등등 마흔 개의 부족이었어요.”(Olivella 1963, 121)라는 막시모의 말을 바탕으로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의 단일성을 문제삼으면서 혼종성을 주장하고, 본질적이고 순수적인 개념으로써 흑인성을 해체한다(Ramírez 175-178). 이것은 호미 바바(Homi Bhabha)가 제안하는 것처럼 문화는 단일하지 않으며 항상 다른 문화와 섞여 있다는 말을 확인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참바쿠가 다양한 흑인 부족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지만, 콜롬비아 내에서 그들은 모두 흑인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소설은 이런 흑인 부족들 자체의 정체성이 아니라 흑인으로 여겨지는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공동체가 피부색과 사회 계급적으로 다른 공동체와 다르며 그것을 바탕으로 의식화해야 한다는 분리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떻게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인들이 반항 정신과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보인다.

『참바쿠, 흑인빈민굴』은 콜롬비아의 역사에서 잊혀버린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삶과 고통과 애환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사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것은 바로 라틴아메리카 작가의 의무이자 역할이기도 하다. 1977년에 멕시코의 소설가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테라 노스트라 *Terra Nostra*』로 ‘로물로 가예고스(Rómulo Gallegos)’ 소설 상을 받으면서, 20세기 후반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구세주적인 임무를 “현대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거대한 과제는 우리의 역사에서 침묵을 지켜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우리 역사의 거짓말에 진실로 대답하고, 옛 과거를 새로운 언어로 흡수하는 것이다.”(Kadir 1984, 300)라고 설정한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진 프랑코(Jean Franco)는 가르시아 마르케스에 관해 말하면서 이렇게 지적한다.

그의 작품에서 그는 ‘우화의 창조자’ 뿐만 아니라 기자로서 근본적으로 역사가 잊어버렸던 것, 즉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외딴 지방의 일상 생활과 같은 진부하고 하찮은 것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의 멋진 전설이나 말 못할 영웅주의를 구해내는 것에 전념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에게 작가의 역할은 상상의 목록에서 오래된 사실들과 파편들을 되찾고, 권력자들의 자발적인 기억상실증에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Franco 1983, 18).

카를로스 푸엔테스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작업처럼,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의 소설 『참바쿠, 흑인빈민굴』은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역사를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역사에서 침묵을 지켜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준다. 그것은 콜롬비아의 문화유산을 상징적이지자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역사를 은폐하기 위한 온갖 수사법을 동원하여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콜롬비아 정부의 속셈과 의도를 파헤치고 고발하면서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정신적 자산을 되찾는다. 하지만 “옛 과거를 새로운 언어로 흡수하는” 소설 미학적 측면에서, 이 소설은 사

회주의 리얼리즘의 대표적 형식인 이분법적 구조를 구사함으로써 중심을 추구하는 식민주의 담론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Abstract

Manuel Zapata Olivella ocupa una posición importante por su acercamiento en las áreas de la protesta y de la etnicidad dentro de la perspectiva latinoamericana. Su novela *Chambacú, corral de negros* trata de la vida de los afrocolombianos en Chambacú, una isla/barrio de Cartagena de las Indias, donde la lucha humana por la supervivencia es de primera importancia. La novela se divide en tres partes: “Los reclutas”, “El botín” y “La batalla”, que sugieren la guerra.

En efecto, la Guerra de Corea forma el contexto para la acción en “Los reclutas”, la primera parte, donde los habitantes de Chambacú fueron reclutados a la fuerza por los militares para servir en el Batallón Colombia que participará en Corea. “El botín” se preocupa por las secuelas de la Guerra de Corea y su impacto en Chambacú. Finalmente, “La batalla” trata de la resistencia violenta contra la idea de que los habitantes de Chambacú debían trasladarse para que pudieran construirse los servicios turísticos, reaccionando negativamente a los Cuerpos de Paz.

Este artículo analiza la función de Guerra de Corea en *Chambacú, corral de negros* y su significado para los afrocolombianos. Para lograr este objetivo, estudia también las situaciones socio-políticas de los afrocolombianos y la importancia de Chambacú en la historia de Colombia negra, las cuales constituyen una base para la interpretación de dicha novela.

Key Words: Korean War, War Literature, Manuel Zapata Olivella, Chambacú, Afrocolombian / 한국전쟁, 전쟁문학,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 참바쿠,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

논문투고일자: 2009. 01. 14

심사완료일자: 2009. 02. 04

게재확정일자: 2009. 02. 10

참고문헌

- Arocha, Jaime(1999), *Obligados de Ananse*, Bogotá: Universidad Nacional.
- Captain-Hidalgo, Ivonne(1993), *The Culture of Fiction in the Works of Manuel Zapata Olivella*,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 Cornejo Polar, Antonio(1993), “Ensayo sobre el sujeto y la representación en la literatura latinoamericana,” *Hispanérica* 22 y 66, pp. 3-15.
- Cuéllar, Diego Montaña(1963), *Colombia: país formal y país real*, Buenos Aires: Editorial Platina.
- Cunin, Elisabeth(2003), *Identidades a flor de piel*, Bogotá: Instituto Colombiano de Antropología e Historia.
- Franco, Jean(1983), “¿Qué ha pasado con el coro? García Márquez y el Premio Nobel,” *Areíto*, No. 32, pp. 18-22.
- Friedemann, Nina(1993), *La saga del negro: presencia africana en Colombia*, Bogotá: Centro Editorial Javeriano.
- Friedemann, Nina y Jaime Arocha(1986), *De sol a sol: génesis, transformación y presencia de los negros en Colombia*, Bogotá: Editorial Planeta.
- \_\_\_\_\_ (1995), “Colombia,” in Minority Rights Group(eds.), *No Longer Invisible: Afro-Latin Americans Today*, London: Minority Rights Group.
- Friedemann, Nina y Alfredo Vanín(1995), *Entre la tierra y el cielo*, Bogotá: Planeta.
- García Márquez, Gabriel(1994), *El amor en los tiempos del cólera*, Barcelona: Mondadori.
- Goytisolo, Juan(1982), “De Don Julián a Makbara: una posible lectura orientalista,” in Juan Goytisolo, *Crónicas Sarracinas*, Barcelona: Ruedo Ibérico, pp. 27-46.
- Gutiérrez Azopardo, Idelfonso(1994), *Historia del negro en Colombia*,



- Bogotá: Nueva América.
- Jackson, Richard L.(1976), *The Black Image in Latin American Literature*,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Kadir, Djelal(1984), “Historia y novela: tramaticación de la palabra,” in Roberto González Echevarría(ed.), *Historia y ficción en la narrativa hispanoamericana*, Caracas: Monte Avila, pp. 297-307.
- Lewis Marvin A.(1985), “La trayectoria novelística de Manuel Zapata Olivella: de la opresión a la liberación,” in Raymond L. Williams (Comp.), *Ensayos de literatura colombiana*, Bogotá: Plaza & Janés, pp. 137-148.
- \_\_\_\_\_ (1987), *Treading the Ebony Path*,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 Olliz Boyd, Antonio(1992), “Manuel Zapata Olivella,” in *Dictionary of Literary Biography Vol. 113: Modern Latin-American Fiction Writers*, Detroit: Gale Research Inc., pp. 313-321.
- Ortiz, Lucía(2007), “Chambacú, corral de negros de Manuel Zapata Olivella, un capítulo en la lucha por la libertad,” in Lucía Ortiz (ed.), *Chambacú, la historia la escribes tú*, Madrid: Iberoamericana Vervuert, pp. 155-170.
- Pratt, Mary Louise(1997), *Ojos imperiales: Literatura de viajes y transculturación*, Buenos Aires: Universidad Nacional de Quilmes.
- Ramírez, Liliana(2007), “Chambacú: heterogeneidad y representación,” in Lucía Ortiz(ed.), *Chambacú, la historia la escribes tú*, Madrid: Iberoamericana Vervuert, pp. 171-182.
- Rengifo, Alejandra(2001), “Marx, Garvey y Gaitán: palimpsesto ideológico en Chambacú, corral de negros,” *Afro-Hispanic Review*, Vol. 20, No. 1, pp. 36-42.
- Rey, Mario(1994), “Una mirada a la obra de Manuel Zapata Olivella,” in Luz Mary Giraldo(ed.), *La novela colombiana ante la crítica 1975-1990*, Cali: Centro Editorial Javeriano, pp. 115-134.

- Tillis, Antonio D.(2005), *Manuel Zapata Olivella and the "Darkening" of Latin American Literature*,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 Zapata Olivella, Manuel(1963), *Chambacú, corral de negros*, Medellín: Bedout.

<http://www.ajlas.org>